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비교 연구

201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민진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비교 연구

현경실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김민진

인 준 서

김민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5월

심사위원장 김 미 숙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현 경 실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 명 숙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문 요 약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비교연구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간의 차이를 조사한 후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봄으로써 음악교육을 통한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이 변화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지역의 예술 고등학교 음악과 학생 160명과 서울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문·이과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적성 검사, 자기효능감 검사, 정서지능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시행되었다. 배포된 검사지 290부 중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수를 제외한 284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4.594, p<.01$). 여기서 과제난이도 선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음악적성 보다 학교유형이었으며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이 높다고 하여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정서조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4.627$, $p<.01$) 여기서 정서조절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음악적성 보다 학교유형이었으며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조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이 높다고 하여 정서조절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정서활용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F=8.191$, $p<.001$). 여기서 정서활용에 영향을 주로 미친 요인은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중 가락점수였으며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적성 중 가락점수가 높을 때, 정서활용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리듬점수는 정서활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와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이 더 높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중 가락점수가 높을 때 정서활용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왜 이렇게 예술계 고등학교라는 학교유형이 강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유는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그동안 전공을 위해 쌓아온 음악교육 및 음악훈련의 결과 혹은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한 영향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높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예상하는 바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3. 연구의 제한점	3
4.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6
1. 음악적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6
2.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구성요소	9
3. 정서지능의 개념 및 구성요소	11
4. 선행연구 고찰	14
III. 연구방법 및 절차	20
1. 연구 대상	20
2. 연구 도구	20
3. 연구 절차	25
4. 연구 분석 방법	26
IV. 결과 및 해석	27
1. 신뢰도 분석 결과	27
2. 음악적성검사에 대한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29
3. 자기효능감에 대한 학교 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29
4. 정서지능에 대한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30
5.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31

6.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34
7.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36
V. 결론 및 제언	40
참고문헌	44
ABSTRACT	48
<부록>	52
1. 한국음악적성검사	53
2. 자기효능감 질문지	54
3. 정서지능 척도 질문지	56

표 목 차

<표 III-1> KMAT의 신뢰도	21
<표 III-2> 자기효능감의 문항구성	23
<표 III-3> 자기효능감의 세가지 구성요소	23
<표 III-4> 정서지능의 문항구성	24
<표 III-5>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25
<표 IV-1> 음악적성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7
<표 IV-2> 자기효능감 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7
<표 IV-3> 정서지능 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28
<표 IV-4> 음악적성검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29
<표 IV-5> 자기효능감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30
<표 IV-6> 정서지능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31
<표 IV-7> 측정변인간 상관계수 행렬표	32
<표 IV-8> 자신감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4
<표 IV-9>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5
<표 IV-10> 과제난이도선호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5
<표 IV-11> 정서인식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6
<표 IV-12> 정서표현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7
<표 IV-13> 감정이입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8
<표 IV-14> 정서조절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8
<표 IV-15> 정서활용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3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어려서부터 음악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왔다. 유치원 혹은 그 이전부터 음악적 영향 아래 있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꾸준한 음악교육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러한 음악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라는 대로 습득하고 익혀왔던 경우가 많았다. 본래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관해 우리는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지만 음악이라는 교과목은 좀 더 융통성 있고 즐길 수 있는, 감정을 사용하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수업이 되길 모두들 지향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뿌리를 찾아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고대그리스 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음악교육은 음악적 감각을 얻고 사고력과 상상력, 통찰력을 기르는 기초적 학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음악적 감각과 능력을 바탕으로 판단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의 본질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통해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신체, 인지, 정서 등의 전인발달을 목표에 두고 있는 음악교육은 결국 인간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던 것이고 정신발달을 위해 음악은 우리에게 필수 교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것이다.¹⁾ 특히 음악교육은 인간의 본능적인 표현욕구와 직관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이유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심리학자 매슬로우(Abraham H. Maslow, 1908 -1970)는 인간은 인간최고의 경험으로 일컬어지는 미적경험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1) 민경훈외,(2014) 「음악교육학 총론」(서울: 학지사), p.51

음악예술이 인간의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 가치를 알 수 있다.“²⁾ 고 하였다. 또한 달크로즈(Emile Jaques-Dalcroze, 1865-1950) 역시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정신적인 면에 강한 감화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되며 음악의 원천은 인간내면, 즉 정신세계와 직결되어 있고 음악을 통해 인간은 집중력, 뇌양스 감지 및 표현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³⁾고 보았다.

이러한 음악교육은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는 누구나가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던 1970-80년대엔 물질만능이 통용될 수 있었다면 현재의 21세기는 삶의 즐거움과 만족을 물질에서만 찾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이러한 행복감은 물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이제는 더욱 내적요인에서부터 그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과 긍정성, 감수성과 같은 정서적인 요인은 개인의 노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며 학교라는 틀 안에서 정서와 감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데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로 넘어오며 삶의 만족, 정서적 안정, 심리적 안녕은 정서지능,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요인이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⁴⁾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정서지능과 같은 내적요인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음악교육의 내면적 영향성과 중요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 음악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은 수없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주로 아동기의 조기음악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인 편이

2) 민경훈외,(2014), 「음악교육학 총론」(서울: 학지사), p.85

3) 임미경외,(2010), 「음악교수법」(서울: 학지사), p.15

4) 김명소의 4명(2003). 한국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22(2). pp.1-33

5) 김미혜 외 2명(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 적용. 한국 노년학, 34(4). pp.857-875

었다. 조기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연구는 해를 거듭하며 이뤄진 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이 주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음악적성을 알아보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간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을 비교해 보며 어떠한 차이와 특징을 지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을 비교하여 보고,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및 정서지능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은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은 정서지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의 제한점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을 비교해 보기위해 서울시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하는 학생과 경기도권 예술계 고등학교 음악과 1,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우리나라에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1) 음악적성

음악적성(Music Aptitude)⁶⁾이란 음악을 학습하기 위한 잠재성 즉 내적인 가능성을 의미하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타고나거나 계발되는 재능으로 음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느끼는 종합적인 능력이다.

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⁷⁾이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며, 한 개인이 원하는 목표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였다.

3) 정서

정서(Emotion)⁸⁾란 의미와 목표, 즉 방향성을 지닌 정신과 신체동작을 의미한다. 기분과 달리 지속시간이 비교적 긴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정서는 내적인 생화학적, 외적인 환경적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심리적 경험의 복합체이다.

4) 정서지능

6) 임미경외(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p. 241

7) 김아영(2007), 「학업적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p. 24

8) 박종수(2013), 「융심리학과 정서」, (서울: 학지사), p.28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⁹⁾이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는 능력, 감정이입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는 능력, 정서를 대인관계에서 활용하는 능력이다.

9) 문용린외.(2013). 「지능과 교육」, (서울: 학지사), p.163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적성의 개념 및 구성요소

음악적 능력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적성(aptitude)적인 면과 재능(talent)적인 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리베즈(Revese, 1953)는 적성을 어떤 분야를 발전,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며,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학습의 빠른 진전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한편 재능은 특정분야에 눈에 띄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며 래도시와 보일(Radocy & Boyle,1997)은 음악적 능력이란 적성적인 면과 능력적인 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음악적성이란 음악적 성취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적성은 음악을 학습하고 음악적 기술을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잠재력이라고 보았고, 성취는 잠재력과 학습에 대한 강한 동기 및 강화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¹⁰⁾

음악심리학자 시쇼어(Carl Seashore)는 음악적성을 학습하기 위한 잠재성이라고 하였으며 음악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집합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음악적성은 학자마다 용어의 해석에 있어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보일과 겐브리스¹¹⁾(Boyle, 1982; Gembris, 2002)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게 되는 타고난 재능으로 음악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해하고 느끼는 종합적인 능력을 음악적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고든(Gordon, 1993)은 타고난 유전적 요소와 환경의 경험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로 누구나 지니고 있는 음악적 성향을 음악적성으로 보았다. 즉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하였다. 또한 래도시와 보일(Radocy & Boyle, 1997)¹²⁾은 환경적 요소를 제외한 타

10) 박유미(2004), 「음악심리학의 이해」, (서울:음악춘추사), pp.207-208

11) 재인용 (Boyle, 1982; Gembris, 2002) 양옥승 외.(2013)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음악적성 및 음악적 성향과의 관계」 p.79

고난 개인의 선천적 능력으로서 개인의 음악적 자질로 보기도 하였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음악적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선천적 능력이라고만 주장하기 어렵고 후속 연구들에 의하면 후천적 영향이 크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¹³⁾

음악적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상인이라면 얼마만큼의 지능(IQ)을 가지고 태어나는 듯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음악적성, 음악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며 둘째, 음악적성은 정상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수준의 음악적성을 가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 아주 낮거나 높은 음악적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타고난 음악적성은 타고나는 것 이상으로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다. 그 사람의 음악적 환경과 음악교육 환경이 음악적성을 타고나는 기질보다도 더욱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¹⁴⁾

따라서 음악적성은 누구나 지닌 보편적인 능력으로 환경적 요인과 교육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임을 알 수 있다. 고든 역시 모든 사람들은 음악적성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음악적성은 선천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고 하였고 적성은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계발 되어진다고 보았다. 음악적성은 음악적 환경이 적당하게 갖추어질 때 음악적성의 증가함을 보였다. ¹⁵⁾

또한 음악적성은 선천적인 요소인지 후천적인 요소인지 심리학자들의 분석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 보면 음악적성이 인간의 보편적 능력이긴 하지만 환경에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음악적성의 후천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통용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12) 상계서 p.80

13) 박유미(2004), 「음악심리학의 이해」,(서울:음악춘추사), pp.215

14) 현경실(2004), 「한국음악적성검사」,(서울: 학지사), pp.23-24

15) 김인실(2011), 「음악적성이 유아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제9집,(聖潔大學校出版部, 성결대학교), p.12

16) 재인용 (Colwell,1992), 김향숙(2000),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사람이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듯이 음악적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음악적 교육과 환경을 제공 받지 못한다면 제대로 그 적성이 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음악적성을 측정해보고자 관련된 검사들을 만들어 왔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들로 발전되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시쇼어의 음악재능 검사와 윙(Wing)의 음악지능검사 벤틀리(Bentley)의 음악적 능력 검사, 고든의 음악적성 프로파일, 음악오디에이션(기초, 중급, 고급)검사가 있으며 한국에는 현경실의 한국음악적성검사가 있다. 시쇼어는 1919년 처음으로 표준화된 검사지를 만들었으며 음악적성의 요소를 소리에 대한 진동수, 진동폭, 진동길이, 진동형태로 음의 높낮이, 크기, 시간, 음색으로 구별하였다. 4가지 외에 리듬과 음을 기억하는 측정이 더 포함되어있다.¹⁷⁾ 윙은 1960년에 음악지능검사를 발표하였다. 윙은 비선호도와 선호도로 나누어 비선호도에서 화음분석, 음고의 변화, 음기억을 알아 봤으며 선호도에서는 리듬, 엑센트, 썸여림등의 하위검사가 있다. 벤틀리는 1966년 영국에서 음악적성 검사를 발표하였는데 음고 구별, 멜로디 기억력, 화음분석, 리듬기억 4가지 요소로 측정하였다.¹⁸⁾

고든은 1965년 음악적성 프로파일을 음감, 리듬감, 음악적 감수성의 세 영역으로 나뉘 만들었다. 하위항목으로 선율과 화성, 템포와 박자, 악절, 균형, 스타일등의 7가지가 있다. 그 후 고든은 1972년과 1982년 1989년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하는 음악 오디에이션 기초검사인 PMMA(Primary Measures of Music Audiation)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용될 수 있는 중급검사(Intermediate Measures of Music Audiation), 중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용될 수 있는 고급검사(Advanced Measures of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최은식(2012), 「한국 음악인지능력검사의 이해와 활용」, (경기: 교육과학사,) p.19

18) 현경실(2004), 「한국음악적성검사」.(서울: 학지사), p.28

Audiation)을 각각 내놓는다. 초급과 중급의 검사 방법은 비슷한 형식을 가지며 하위검사로는 음감과 리듬감 검사로 나뉜다.¹⁹⁾ 각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은 음감과 리듬감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한 문항은 한 쌍의 멜로디를 듣고 그 두 멜로디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검사는 음악 전공자를 위해 만들어 졌으나 검사시간을 수정한 후 일반학생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고든은 음악을 상상하는 능력, 즉 ‘오디에이션’이 음악의 기본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모든검사에서 이러한 ‘오디에이션’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2. 자기효능감의 개념 및 구성요소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자기도식에 기반을 둔 동기 이론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사회학습이론에서 발전 된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인지이론으로 명칭을 바꾸고 급속히 부상 하였다. 반두라(Albert Bandura: 1925~)는 자기효능감을 학습자가 과제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며, 이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효능성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느냐 또는 자기 자신의 효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결과이기 때문에 ‘지각된 효능성’ 또는 자기 효능성에 대한 신념 또는 기대’ 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며 필요한 신체적, 지적, 정서적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되어지기도 한다. 효능에 대한 신

19) 김인실(2011) 「음악적성이 유아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제9집, (聖潔大學校出版部, 성결대학교), pp.23-24

념은 행동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사고과정에 대한 자기조절, 동기 그리고 정서적, 생리적 상태와도 관련되어 있다.²⁰⁾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성에 대한 기대, 자기효능성에 대한 신념, 지각된 자기효능감등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신의 구체적인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을 의미한다면 자신감과 비슷할 수 있지만 자신감은 그 확신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설정 등에 대한 구체화에 이르기 전단계로 자기효능감과는 능력수준에 대한 확신과 신념의 강도가 다르다고 보았다. 어떤 면에서 자신감은 자기효능감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단순히 미래의 행동에 대해 예견하는 것이 아닌 인지적인 매개과정으로 개인의 행동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자기효능감은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이 그 일을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지 될 때 자신을 갖고 대처해 나간다. 둘째 행동에 쓰이는 자신의 노력과 시간에 대해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지속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포기하거나 노력을 줄이지만 효능감이 강한사람은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정서에도 영향을 주는데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과제에 방해를 받고 지속하기 어렵지만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적절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세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게 되며 각각의 개념이 갖는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 혹은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으로 인지적인 판단과정을 통해 성립되고, 정서반응으로 표출된다.

둘째, 자기조절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조절, 즉

20) 김아영,(2007)「학업적 자기효능감」, (서울: 학지사), p. 32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이다²¹⁾. 자기조절체계가 인간행동의 기본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목표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수행을 판단하고, 긍정적이라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가적인 행동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셋째,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표출된다.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행동상황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한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기술을 뛰어넘는 위협적인 상황을 무서워하고 피하려 하며 그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만을 선택하고 행동한다.

3. 정서지능의 개념 및 구성요소

정서란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로 ‘e’는 ‘밖으로’라는 뜻이며 ‘moere’는 ‘움직인다’라는 뜻이다. 밖으로 움직이려면 주위에 자극존재가 있어야 가능하며, 또 이렇게 움직이는 반응행위를 하는 유기체의 조건이 고려되어야한다. 따라서 심리학의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유기체, 환경 가운데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지며, 이에 기초한 정서 이론과 연구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²²⁾

정서지능은 일반지능(Intelligence)에 대비되는 말로서 Mayer 와 Salovey (1990)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그들은 가드너의 다중지능영역 중 대인관계

21) 제인용 강영숙(2002)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22) 문용린외.(2013). 「지능과 교육」, (서울: 학지사), p.163

지능과 개인 사회지능으로부터 정서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 정의 하였으며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적능력이라고 하였다.²³⁾ 이후 골먼 (Goleman, 1995)은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관점이나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재능이나 성격특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보았고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성공에 정서지능이 기여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서지능이란 좌절 상황에도 개인을 동기화 시키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하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정의 된다.²⁴⁾ 정서 경험을 처리하는 것과 인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다르며, 최근 그의 저서에서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에서는 우리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내부에서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잘 다루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문용린(1997)은 정서를 이성능력을 발휘하게 하거나 억압하고 제한하기도 하는 감성 능력, 좌절의 상황에서 희망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통제하며 타인들의 감정들에 대해 예민하게 느끼고 인내심을 지속시켜 근심으로 인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방해받지 않도록 정서를 통제 할수 있는 능력, 인내심과 지구력, 정열과 용기, 신념과 절제력,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통제하고 활성화 시키는 능력이라고 하였다.²⁵⁾

이후 Mayer(2003)는 정서는 물리적인 반응, 의식, 인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심리적인 체계를 조절하는 내부적인 경험들로서 기억이나 가족, 타인과의 관계가 변할 때 반응한다고 하였고 개인의 발달에 있어 정서는 정서반응과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중요한 요

23) 상계서 pp.162-163

24) Gold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 U.S.A, p.191-213

25) 문용린(1997), 「삼성EQ검사 결과 보고」. 서울: 서울대 교육학과 도덕연구실

소가 된다고 발표하였다.²⁶⁾

이처럼 정서지능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꾸준히 과학적인 설명과 증거를 토대로 정서지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기준과 원리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정서지능이란 자신의 정서를 알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을 조절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서를 이용할 줄 알며 감정이입을 통해 공감하고 그 정서를 대인관계 속에서 활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정서인식은 자신이 느끼는 정서 상태를 재빨리 인식하고 정확히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또한 정서지능의 기본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타인이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내용의 정서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정서표현은 상황에 맞게 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을 나타 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영역으로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말 또는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정서표현은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이 있다. 언어적 방식이란 자신의 정서를 언어로 명명하고 변별하며 언어를 매개로 왜곡 없이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비언어적 방식이란 표정, 몸짓, 말투 등의 비언어적인 경로와 신호를 말하며, 이를 이용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다.²⁷⁾

셋째, 감정이입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부에서 재 경험해 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영역이다.

26) 재인용, 문용린, 박윤정(2005), 「정서지능과 직위의 관계에 관한 중단연구」. (한국인간발달학회지: 인간발달연구) 12(4).

27) 문용린외.(2013). 「지능과 교육」,(서울: 학지사), p.168

넷째, 정서조절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균형 있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적응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좌절을 느끼거나 불쾌한 감정 상태에 있는 타인의 기분을 전환시켜 대인 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또한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는데 정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요인이다.²⁸⁾

다섯째, 정서활용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정서에 대한 이해능력을 토대로 과제수행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이나 기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영역으로 과제수행이나 문제해결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정서지식을 어느정도 활용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정서활용 능력은 연역적·귀납적 사고, 추론, 문제해결, 과제의 창의적 해결 등을 위해서 정서정보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하며 이 능력의 기본가정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정서상태를 생성해 낼수 있다는 점이다. 정서활용의 능력에는 융통성 있는 계획세우기, 창의적 사고, 주의집중 전환, 과제를 수행할 때 좋은 기분을 이용하여 자신감을 부여하는 동기화 등이 있다.²⁹⁾

그 외 정서의 사고촉진능력은 정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용하는 영역으로 정서를 이용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며,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어느정도 정서를 촉진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한 영역이다.

4. 선행연구 고찰

김향숙³⁰⁾(2001)은 중·고등학생의 음악적성과 음악흥미가 정서지능과 어떠

28) 신호정의.(2016),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피와이 메이트), p.217

29) 문용린외.(2013), 「지능과 교육」, (서울: 학지사), pp.173-174

30) 김향숙(2001),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음

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정서지능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특성변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중·고등학생 총 460명이 참여하였다. 음악적성과 정서지능은 적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음악흥미와 정서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적성이 높아질수록 정서지능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보다 음악흥미가 높아질수록 정서지능이 더욱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정서적, 신체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은 음악적성보다 음악흥미에 따른 관심에 정서지능과 더 많은 관련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정적 잠재력 보다 감성적 태도인 음악흥미가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서지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음악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김혜정³¹⁾(2005)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적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정서지능을 통해 음악교육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165명이 참여하였으며 자료를 분석한 후 음악적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와 함께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분석과 음악적성을 우수, 양호, 부족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그룹간의 차이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음악적성과 정서지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악적성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에서 여학생들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나 남학생의 경우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서지능의 수치는 여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음악적성에서 리듬과 가락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남학생들은 리듬 점수가 높아진다고 하여 가락점수가 높아지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리듬 점수가 높아지면 가락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악적

약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김혜정(2005), 「초등학생의 음악적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 점수대별 우수, 양호, 부족 집단에서 음악적성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정서지능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때 다양한 음악적 변인을 가지고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음악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하였다.

박정신³²⁾(2008)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실기 연수과정 7학년을 대상으로 음악전공 학생들의 음악적성, 정서지능, 정의적 반응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그 요인을 분석하여 음악교육의 목표인 음악예술의 향유와 생활화에 가장 의미 있게 작용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가락점수는 음악적성검사와 유의미한 관련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리듬점수는 음악적성검사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리듬점수가 높을수록 음악적성 종합점수가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둘째 음악적성검사의 음악적성 중 리듬점수와 음악교과 태도, 음악취향과 정적상관관계를 지닌다. 셋째, 정서의 반영조절은 정의적 반응과 정적상관관계를 보이며 정서의 사고촉진은 음악교과 태도와도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넷째 음악적성검사 중 리듬점수와 정서지능 중 정의적 반응에 대하여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정의적 반응 하위요소 중 감정민감성은 음악적성 상위그룹과 하위그룹 간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음악적성 상위그룹은 감정민감성이 높으며 음악적성 하위그룹은 감정민감성이 낮은 결과를 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대상에서는 동일한 음악적성 점수에서도 개인마다 정서지능, 정의적 반응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개인 내적 차이와 개인 성향 차이도 다양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음악전공학생들의 심층적인 이해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음악전공학생들이 음악적 능력과 정서지능 하위항목들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교수법 적용에 있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정서지능 모형개발연구에 방향을 제시하거

32) 박정신(2008), 「음악적성 및 정서지능의 정의적 반응에 대한 상관관계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실기 연수과정 7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 개인의 특성 파악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후속연구로 중·고등학교 음악전공 학생들과 비전공 학생들의 음악적성, 정서지능, 정의적 반응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는 연구를 제언하였다.

조상윤³³⁾은 음악적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음악성취도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분석하고,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의 관계에 있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일반중학교 1,2학년 127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음악적성과 음악성취도는 통계적으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음악적성이 높을수록 음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음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음악성취도가 높다는 결과이다. 셋째 음악적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음악적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또한 음악적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음악성취 중에서 음악이론 성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음악적성은 음악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정적 음악적성기의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취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이세라³⁴⁾(2013)는 음악활동 경험이 정서지능, 음악적성, 음악흥미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6학년 188명을 대상으로 음악활동경험과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음악활동경험과 음악적

33) 조상윤(2008), 「중학생의 음악적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4) 이세라(2013), 「음악활동경험이 정서지능, 음악적성, 음악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음악활동경험에 따른 음악흥미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음악활동경험과 정서지능에서 정서지능의 하위항목인 감정이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음악활동경험이 많을수록 감정이입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음악활동경험과 음악적성과의 관계에서 음악적성검사 중 가락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음악활동 경험의 많을수록 가락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음악활동경험과 음악흥미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음악활동경험이 많을수록 음악흥미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역별로 비교해본결과 음악활동경험에 따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음악흥미도였다. 흥미는 경험에서 오는 행동경향성이고 음악적 경험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했는지가 흥미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음악을 즐겁게 즐기기 위한 학생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로 음악활동경험 기간을 고려한 연구를 제언하고 있다.

이주연³⁵⁾(201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음악교육을 받았던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경험의 질에 따라 음악지능과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만 9세 이전에 1년 이상 조기음악교육을 경험한 6개 학교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6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경험기간과 경험의 질에 따른 음악지능과 정서지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조기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경우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음악지능과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 정서활용, 그리고 감정이입 영역에서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강요 경험과 즐거움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강요경험은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에서, 즐거움 경험은 음악 지능

35) 이주연(2015), 「조기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지능, 다중지능, 음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과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과 정서조절을 제외한 정서인식 및 표현, 사고촉진, 그리고 정서활용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조기음악교육의 경험기간과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은 청소년기의 정서지능, 다중지능, 음악효능감에 관련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험기간이 길수록 정서지능, 다중지능, 음악효능감의 발달 가능성도 커지며 아동들이 경험하는 교육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서 각 특성의 발달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볼 때 중·고등학교 음악전공 학생들과 비전공 학생들의 음악적성, 정서지능, 정의적 반응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없었고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기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음악적성과 음악흥미와의 상관관계를 혹은 음악적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몇 가지 제시되었으나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세가지 변인을 함께 알아보는 연구는 아직 선행되지 않았기에 연구를 실시 하게 되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 지역의 G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과 학생 1학년과 2학년 160명과 서울 지역의 D고등학교 문·이과 학생 2학년 1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적성 검사, 자기효능감 검사, 정서지능 검사를 하였다.

가. 음악적성 검사

음악적성의 측정 도구로 현경실(2004)이 개발한 한국음악적성검사(Korean Music Aptitude Test, KMAT)를 사용하였다. 검사의 총 실시 시간은 22분이며 답안지를 나눠주고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40분 이내로 검사할 수 있다. KMAT는 '리듬' 과 '가락' 각각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음된 CD를 들으며 사전지식 없이도 검사를 따라갈 수 있다. 대상은 9세부터 일반인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본 음악적성검사 도구에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리듬 .86, 가락 .79이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각각의 신뢰도는 <표 III-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III-1> KMAT의 신뢰도

구분	리듬	가락
초등학교 3학년	.81	.79
초등학교 4학년	.83	.77
초등학교 5학년	.84	.77
초등학교 6학년	.86	.79
초등학교 전체	.85	.79
중학교 1학년	.84	.77
중학교 2학년	.82	.75
중학교 3학년	.82	.76
중학교 전체	.84	.77
전체	.86	.79

(1) 리듬검사

한국음악적성 검사의 리듬 검사에서는 각 문항이 시작될 때 타악기 소리로 한마디 길이의 예비박이 주어진 후 본 문항이 시작된다. 리듬검사는 두 마디 짜리 리듬 패턴이 사용되었으며 피험자들은 두 개의 리듬 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구별 하여 정답지에 표시한다.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의 비율은 2:1로 서양음악이 20문항, 국악이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순서는 3/4, 4/4, 6/8, 12/8 박자 순서로 배치하였다. 이중 12/8 박자는 국악 문항에 해당한다.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 1점씩 만점은 30점이다.

(2) 가락검사

음악에서 리듬과 가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분류되는데 한국 음악적성검

사에서는 리듬 하위검사가 따로 있으므로 이 가락 검사에서는 리듬의 요소를 제외한 ‘음감’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 검사에 쓰인 가락들은 장조와 단조로 대표되는 ‘조’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양음악은 장조와 단조 음계를 사용하였고, 한국음악은 오음음계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들은 ‘리듬’ 검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문항당 한쌍의 가락패턴을 듣고 ‘같은가’ ‘다른가’를 답하도록 되어있다. 가락검사는 서양음악이 22문항, 한국음악이 8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전체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1점씩 만점은 30점이다.

나. 자기효능감 검사

자기효능감을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측정하려는 척도를 개발·검증·적용 하려는 연구들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는 Sherer와 5인(1982)³⁶⁾이 제작한 척도에 과제난이도 선호와 귀인이라는 이론적 구성요인을 첨가하여 김아영³⁷⁾과 차정은이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제작하였으며, 김아영³⁸⁾³⁹⁾이 이에 대한 일련의 타당화 작업을 거쳐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라는 3개의 요인과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제작되었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self report-test)으로 ‘매우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평정 되었다.

본 자기효능감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87이고 각각의 하

36)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37) 김아영 교수는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 심리학전공 교수로 교육심리학자로서 공간능력검사, 학업적성검사등의 인지적 검사뿐만 아니라 학업동기를 포함한 다양한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검사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30여편의 심리검사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38) 김아영(1997a)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측정(2) 미간행 연구자료

39) 김아영(1997b)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수 연구, *교육심리 연구*, 11(2), 1-19

위 함목의 문항수, 문항번호는 <표 III- 2>와 같다.

<표 III-2> 자기효능감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Cronbach's α)
자신감	7	1•,3•,5•,10•,11•,13•,16•	.79
자기조절효능감	12	2,4,7,8,12,14,17,19,20,21,23,24	.86
과제난이도선호	5	6•,9•,15,18,22	.83
전체	24	1~24	

(•표시는 역산 문항임:1,3,5,6,9,10,11,13,16)

다음은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에 대한 하위 항목 간 개념의 정의이다.

<표 III-3> 자기효능감의 세가지 구성요소

요 인	개념정의
자신감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
자기조절 효능감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에 대한 조절적 기제를 잘 사용하는 것
과제난이도선호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과정

다. 정서지능 검사

Mayer 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형에 입각하여 문용린⁴⁰⁾(1997)이 개

발한 정서지능척도(The Adult Emotional Quotient Test: AEQT)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self report-tes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지능의 영역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다섯 가지 능력을 측정하며 총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활용영역(8문항)은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에 대한 응답이 ①인 경우 2점으로, ②인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정서지능 도구의 각 하위요인의 문항 수, 문항 번호 및 신뢰도는 (Cronbach's α) <표 III- 4> 와 같다.

<표 III-4> 정서지능의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신뢰도(Cronbach's α)
정서인식	8	1,2,4,9,16,23,24,30	.74
정서표현	7	3,11,17,25,31,36,40	.75
감정이입	7	10,12,18,26,32,37,41	.73
정서조절	15	5,6,7,13,14,19,20,21,27,28,33,34,38,42,43	.78
정서활용	8	8,15,22,29,35,39,44,45	.73
전체	45	1~45	

(• 표시는 역산문항임:3,4,9,11,17,31,36,37번)

정서지능의 구성요소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서활용이며 각각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40) 채인용, 문용린(1997)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서울대학교 연구소)

<표 III-5> 정서지능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정서지능 영역	내 용	
정서인식	정의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재빨리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
	측정 요소	자신의 정서인식, 타인의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의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이나 표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측정 요소	자신의 정서표현, 타인의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의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여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측정 요소	의미있는 타 대한 감정이입, 무의미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정서조절	정의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
	측정 요소	자신의 정서조절, 타인의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의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수 있는 능력
	측정 요소	융통적 계획, 창의적 사고, 새로운 주의 전환, 동기화

3.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음악적성과 정서지능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고 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음악적성과 정서지능, 자기효능감에 대한 문헌연구 후 현경실의

음악적성검사와 문용린(1997)이 제작한 자기보고식 정서지능검사지, 김아영과 차정은(1996)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2017년 2월 6일과 3월14일, 16일 3회에 걸쳐 서울지역 D고등학교와 경기지역 G예술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으며 음악적성검사 30분, 정서지능 15분, 자기효능감 15분에 걸쳐 시행되었다. 설문과정은 고등학교 교감선생님과 음악부장님께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협조를 요청한 후 고등학교의 자율학습 시간과 시창·청음시간에 담당 선생님과 함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검사 실시 후 설문지를 회수 하였다. 총 29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회수된 290부 중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무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8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학교특성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SPSS 23 for window로 통계처리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조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신뢰도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음악적성, 정서지능, 자기효능감의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했다.

셋째, 고등학생의 학교유형, 음악적성, 지각하는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고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신뢰도 분석 결과

본 음악적성검사 도구의 전체 신뢰도 결과(Cronbach's α)는 .835이고 각각의 하위항목의 문항 수, 문항번호는 <표 IV- 1>와 같다.

<표 IV-1> 음악적성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리듬검사	1 - 30	30	.739
가락검사	31 - 60	30	.802
전체	1 - 60	60	.835

본 자기효능감 도구의 전체 신뢰도 결과는 (Cronbach's α)는 .882이고 각각의 하위항목의 문항수, 문항번호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자기효능감 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자신감	1*,3*,5*,10*,11*,13*,16*	9	.789
자기조절효능감	:2,4,7,8,12,14,17,19, 20,21,23,24	10	.867
과제난이도 선호	6*,9*,15,18,22	5	.803
전체	1 - 24	24	.882

* 역채점 문항

본 정서지능검사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하위항목간의 점수가 다르게 묶인 문항이 있기에 따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하위항목의 문항수, 문항번호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정서지능 검사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서인식	1,2,4,*9*,16,23,24,30	8	.780
정서표현	3*.11*,17*,25,31*, 36*,40	7	.652
감정이입	10,12,18,26,32,37*,41	7	.639
정서조절	5,6,7,13,14,19,20,21, 27,28,33,34,38,42,43	15	.807
정서활용	8,15,22,29,35,39,44,45	8	.629
전체	1 - 45	45	-

* 역채점 문항

2. 음악적성검사에 대한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표 IV-4> 음악적성검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i>t</i>	<i>p</i>
리듬검사	학교유형	일반고	126	25.17	3.55	-8.790***	.000
		예술학교	158	28.04	1.83		
가락검사	학교유형	일반고	126	26.88	3.10	-7.365***	.000
		예술학교	158	29.11	1.97		

*** $p < .001$

음악적성검사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가 <표IV-4>에 제시되었다. 음악적성검사 중 리듬검사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8.790, p < .001$). 이는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리듬검사 점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리듬검사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락검사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 = -7.365, p < .001$). 이는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락검사 점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락검사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자기효능감에 대한 학교 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가 <표 IV-5>에 제시되었다.

<표 IV-5> 자기효능감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i>t</i>	<i>p</i>
자신감	학교유형	일반고	126	26.31	5.71	-.063	.950
		예술학교	158	26.35	6.13		
자기조절 효능감	학교유형	일반고	124	48.45	7.87	-1.907	.057
		예술학교	157	50.28	8.10		
과제난이도 선호	학교유형	일반고	126	15.04	3.61	-3.478**	.001
		예술학교	158	16.79	4.60		

***p*<.01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는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478, p<.01$). 이는 예술계 고등학교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보다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감과 자기조절효능감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정서지능에 대한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정서지능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가 <표IV-6>에 제시되었다.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은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442, p<.01$). 이는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조절 점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정서조절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활용도 고등학생의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145, p<.001$).

<표 IV-6> 정서지능에 대한 고등학생의 학교유형별 차이분석 결과

종속변수	배경변인	집단	인원	평균	표준편차	<i>t</i>	<i>p</i>
정서인식	학교유형	일반고	126	28.47	4.18	1.705	.089
		예술학교	157	27.56	4.71		
정서표현	학교유형	일반고	125	23.12	4.07	.885	.377
		예술학교	156	22.67	4.30		
감정이입	학교유형	일반고	126	26.46	3.69	-1.753	.081
		예술학교	158	27.22	3.57		
정서조절	학교유형	일반고	125	53.26	7.04	-3.442**	.001
		예술학교	154	56.12	6.80		
정서활용	학교유형	일반고	118	8.45	3.60	-4.145***	.000
		예술학교	150	10.12	2.95		

** $p < .01$, *** $p < .001$

이는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활용 점수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활용 점수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은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측정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학교유형, 음악적성,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각각의 하위요인들이 변인 간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나타난 수치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측정변인간 상관계수 행렬표

요 인	1.학교 유형	2. 리듬 검사	3.가락 검사	4.자신 감	5.자기 조절 효능감	6.과제 난이도 선호	7.정서 인식	8.정서 표현	9.감정 이입	10.정서 조절	11.정서 표현
1. 학교유형	1.000										
2. 리듬검사	.455**	1.000									
3. 가락검사	.453**	.449**	1.000								
4. 자신감	.010	-.006	.048	1.000							
5. 자기 조절 효능감	.116	.158*	.192**	.395**	1.000						
6. 과제 난이도 선호	.199**	.153*	.165**	.353**	.404**	1.000					
7. 정서인식	-.082	.010	.007	.330**	.389**	.125*	1.000				
8. 정서표현	-.071	-.031	-.014	.343**	.380**	.212**	.469**	1.000			
9. 감정이입	.111	.099	.077	.156*	.259**	.210**	.314**	.276**	1.000		
10.정서조절	.215**	.143*	.178**	.252**	.393**	.220**	.310**	.280**	.478**	1.000	
11.정서활용	.257**	.100	.269**	.271**	.256**	.246**	.069	.079	.063	.212**	1.000

*p<.05, **p<.01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유형은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r=.215, p<.01$), 정서활용($r=.257,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가 정서조절,

정서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음악적성검사 중 리듬점수는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r=.192$, $p<.01$), 과제난이도 선호($r=.153$,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리듬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음악적성검사 중 리듬점수는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r=.143$,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리듬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 정서활용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넷째, 음악적성검사 중 가락점수는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r=.192$, $p<.01$), 과제난이도 선호($r=.16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락검사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신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음악적성검사 중 가락점수는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r=.178$, $p<.01$), 정서활용($r=.26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락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은,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r=.330$, $p<.01$), 정서표현($r=.34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신감이 높을수록 정서인식과 정서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은, 정서인식($r=.389$, $p<.01$), 정서표현($r=.380$, $p<.01$), 정서조절($r=.39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 이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정서조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6.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6-1.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표 IV-8> 자신감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p	VIF
학교유형	-.012	-.177	.860	1.357
리듬	-.033	-.472	.638	1.417
가락	.079	1.144	.254	1.326

종속변수 : 자신감, $R^2=.005(F=.442, p=.723)$

<표 IV-8>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중 자신감을 0.5% 설명하였다($F=.442, 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자신감의 관계를 위의 표에 게재된 3가지(학교유형, 리듬, 가락) β 값을 통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2.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IV-9>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ρ	VIF
학교유형	.048	.697	.487	1.353
리듬	.077	1.090	.277	1.417
가락	.075	1.092	.276	1.325

종속변수 : 자기조절효능감, R2=.025(F=2.385, p=.070)

<표 IV-9>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을 2.5% 설명하였다(F=2.385, 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자기조절효능감의 관계를 위의 표에 게재된 3가지(학교유형, 리듬, 가락) β 값을 통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3.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영향

<표 IV-10> 과제난이도선호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ρ	VIF
학교유형	.157*	2.317	.021	1.357
리듬	.059	.847	.398	1.417
가락	.045	.672	.502	1.326

종속변수 : 과제난이도 선호, R2=.047(F=4.594**p=.004)

*p<.05, **p<.01

<표 IV-10>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효능감 중 과제난이도 선호를 4.7% 설명하였다($F=4.594, p<.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과제난이도 선호의 관계를 위의 표에 게재된 3가지(학교유형, 리듬, 가락) β 값을 통해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beta=.157, p<.05$). 이는 학교유형이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7-1.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

<표 IV-11> 정서인식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p	VIF
학교유형	-.129	-1.863	.063	1.354
리듬	.059	.830	.407	1.414
가락	.002	.022	.983	1.324

종속변수=정서인식, $R^2=.013(F=1.225, p=.301)$

<표 IV-11>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인식을 1.3% 설명하였다($F=1.225, 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정서인식의 관계를 위의 표에 게재된 3가지(학교유형, 리듬, 가락) 각각 β 값을 통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2.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표현에 미치는 영향

<표 IV-12> 정서표현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p	VIF
학교유형	-.071	-1.022	.308	1.353
리듬	.030	.418	.676	1.418
가락	.011	.167	.868	1.322

종속변수=정서표현, $R^2=.004(F=.351, p=.788)$

<표 IV-12>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표현을 0.4% 설명하였다($F=.351, 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정서표현의 관계를 위의 표에 게재된 3가지(학교유형, 리듬, 가락) 각각 β 값을 통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3.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

<표 IV-13>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감정이입을 1.3% 설명하였다($F=1.206, p>.05$).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표 IV-13> 감정이입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p	VIF
학교유형	.077	1.117	.265	1.357
리듬	.033	.468	.640	1.417
가락	.028	.408	.684	1.326

종속변수 : 감정이입, $R^2=.013(F=1.206, p=.308)$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감정이입의 관계를 위의 표에 게재된 3가지(학교유형, 리듬, 가락) 각각 β 값을 통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요인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감정이입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7-4.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표 IV-14> 정서조절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p	VIF
학교유형	.156*	2.243	.026	1.406
리듬	.017	.245	.806	1.419
가락	.087	1.265	.207	1.358

종속변수 : 정서조절, $R^2=.048(F=4.627^{**}p=.004)$

* $p<.05$, ** $p<.01$

<표 IV-14>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을 4.8% 설명하였다($F=4.627, p<.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정서조절의 관

계를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학교유형, 리듬, 가락 3가지 항목으로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beta=.156, p<.05$). 이는 학교유형이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조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7-5.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표 IV-15> 정서활용에 대한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의 다중회귀분석

모형	표준화 계수 β	t	p	VIF
학교유형	.221**	3.232	.001	1.352
리듬	-.108	-1.555	.121	1.394
가락	.174*	2.541	.012	1.357

종속변수 : 정서활용, $R^2=.085(F=8.191^{***} p=.000)$

* $p<.05$, ** $p<.01$, *** $p<0.001$

<표 IV-15>에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정서지능 중 정서활용을 8.5% 설명하였다($F=8.191, p<.001$). 학교유형 및 음악적성과 정서활용의 관계를 학교유형, 리듬, 가락 3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가락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beta=.221, p<.01$). 이는 학교유형이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서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적성 중 가락검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이므로($\beta=.174, p<.05$). 이는 가락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두가지 변인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두가지 모두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신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두가지 변인이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두가지 모두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유형과 음악적성이 자기조절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두가지 변인이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았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이 높다고 하여 과제난이도선호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두가지 변인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서조절이 높았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서조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이 높다고 하여 정서조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유형과 음악적성 두가지 변인이 정서활용에 미치는 결과를 살

펴보면, 학교유형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서 활용이 높았다.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서 활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중 가락점수가 높을 때, 정서 활용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리듬점수가 높아질수록 정서 활용이 높아지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 중 과제난이도 선호와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과 정서 활용이 더 높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중 가락점수가 높을 때 정서 활용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효능감과 정서지능이 더 높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그동안 전공을 위해 쌓아온 음악교육 및 음악훈련의 결과 혹은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한 영향에 따른 진로성숙도가 높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예상하는 바이다. 다음은 예술계 고등학교라는 학교유형이 강하게 영향을 준 이유를 추론해 본 결과이다.

첫째, 예술계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대비 목적지향적인 고등학교이고 이곳에 진학한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진로를 일정 부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술계 고등학생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도전을 경험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비해 많을 것이다. 또한 음악과 특성상 실기시험에서 난이도 있는 곡을 선택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주어진 커리큘럼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목표지향적인 학습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습성향이 자기 효능감 중 과제난이도 선호에 영향을 줘 높은 관계성을 보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빠른 진로 선택과 그

에 따른 목표지향적인 교육과정안을 개발하여 학생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기효능감을 더욱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서조절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 예술계 고등학교의 음악과 특성상 함께하는 관현악 합주 또는 앙상블, 합창 등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제어하고 타인의 정서를 살필 줄 아는 능력이 좀 더 발달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진로를 결정한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학생이 많을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여건에 맞춰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합주, 합창과 같은 음악수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보강함으로써 정서조절에 대한 능력을 더욱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활용이란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여 생산적인 활동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과제수행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감정이나 기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영역이다. 검사결과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활용이 높았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적성 중 가락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활용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서활용에서 역시 예술계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 보다 정서활용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은 아마도 음악작품을 연주하는데 있어서 감정이나 기분을 활용하는데 그 능력의 증강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락점수가 높아질수록 정서활용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인데 앞선 분석에서 음악적성검사 중 리듬, 가락점수가 높을수록 과제난이도선호나 정서조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던 결과와 상반된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모두 음악적성 중 가락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활용이 높다는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가락(멜로디)에 대

한 교육을 확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학생들의 정서활용 부분의 능력을 증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락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이용하고 과제수행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서를 활용하는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여 학교유형이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에 강력한 영향을 준 원인을 찾아보면, 진로성숙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그 답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선행연구⁴¹⁾⁴²⁾⁴³⁾결과를 토대로 고등학생의 음악적 능력에서 오는 차이 뿐 아니라 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역량 강화를 통해 정서지능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체능 교육이 줄어들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후속연구로 음악적성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정서지능의 하위구성요소 중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이입>과 자기효능감 하위구성요소 중 <자신감>은 리듬·가락이 아닌 어떠한 음악적 변인으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추가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횡단분석 연구였기 때문에 음악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음악적교육 처지 집단과 아닌 집단을 비교 연구한 후 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41) 고복순,김영혜(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한국동서정신과학회), pp.29-42

42) 박지영(2013),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3) 백연옥,심혜숙(2015),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장벽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pp.59-74

참 고 문 헌

단행본

- 권덕원외(2014), 음악교육의 기초, 경기: 교육과학사
- 문용린외.(2013). 지능과 교육, 서울: 학지사
- 민경훈, 김신영 외 3명(2013),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박종수(2013), 융심리학과 정서, 서울: 학지사
- 박유미(2004), 음악심리학의 이해, 서울:음악춘추사
- 성태제(2005)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신효정의.(2016),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피와이 메이트
- 임미경외,(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 알베르트 반두라(2004),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기효능감, 서울: 학
지사
- 최은식(2012) 한국 음악인지능력검사의 이해와 활용, 경기: 교육과학사
- 현경실(2004), 한국음악적성검사, 서울 학지사
- 황준성, 홍주영 외 1명(2012), 아이의 정서지능, 서울: 지식채널
- Gerald Matthews, 김정희.(2014) 정서지능 그 오해와 진실, 서울: 학
지사

학술지

- 고복순,김영혜(2011), 중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의식 성숙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

pp.29-42

김아영(1997b)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변수 연구, 교육심리 연구, 11(2), 1-19

김인실(2011), 음악적성이 유아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출판사, pp.9-26

문용린(1997) 「한국 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 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서울: 서울대학교 연구소

박형신, 김희복(2014), 악기를 활용한 음악감상활동이 유아의 음악적 성과 음악적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音樂教育研究. 43(2), pp.1-23

백연옥,심혜숙(2015),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진로장벽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명교육혁신연구 25권1호 pp.59-74

양소영, 초등학교 4학년의 음악적성과 청각인지능력 상관관계 연구, 음악과 민족. 제36호, pp.391-416

양옥승, 윤지영(2013),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음악적성 및 음악적 성향과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제18권, 덕성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pp.77-99

승윤희(2000), 감성지능의 이해와 음악교육의 역할. 음악교육연구. 제19집 pp. 109-130

장근주(2011),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와의 관계 韓國音樂教育學會, 音樂教育研究. 제40집 제2호, pp.53-82

현경실(2008), 어린이의 신체동작능력과 음악적성과의 상관관계 연구,

학위논문

- 박지영(2013),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연(2015), 조기음악교육이 청소년의 정서지능, 다중지능, 음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2001), 음악적성 및 음악흥미와 정서지능과의 관련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5), 초등학생의 음악적성과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신(2008), 음악적성 및 정서지능의 정의적 반응에 대한 상관관계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실기 연수과정 7학년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상윤(2008), 중학생의 음악적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외국문헌

Bandura, A(1977a) *Social-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1977b)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pp.191-215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entice-Hall
- Goldman, D.(1995).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Book, U.S.A, pp.191-213
- Mayer, J. D.,& Salovey, P.(1990) *Emotional intelligence, oganition and personality, 9(3),* pp. 185-211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pp. 663-671.

ABSTRACT

A Comparison of Musical Aptitude,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High School and Arts High School Students

Kim min jin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surveyed the difference in musical aptitude,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betwee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art high school students and reviewed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 accordance with school type and musical aptitude. Moreover, by reviewing the variables that affect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 looked at whether changes in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rough musical education are possible.

Subjects were 130 students majoring in liberal arts and sciences at general high schools in Seoul and 160 students majoring in music at art high schools in Bucheon, Gyeonggi Province. To review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al aptitude,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 musical aptitude test, self-efficacy test and emotional intelligence test were conducted from February to March, 2017. Of the 290 test sheets that had been distributed, 284 copies after excluding those with insufficient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on the effect that school type and musical aptitude has 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led to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school type and musical aptitude appear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reference for assignment difficulty among the categories of self-efficacy. ($F=4.594$, $p<.01$). The factor that affected the preference for assignment difficulty were school type rather than musical aptitude. This indicates that art high school students have a tendency to prefer assignments of higher difficulty. Meanwhile, just because musical aptitude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art high school students didn't mean that their preference for assignment difficulty was high.

Second, school type and musical aptitude appear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control of the self and others in the category of emotional intelligence ($F=4.627$, $p<.01$). The factor that affected emotional control most was school type rather than musical aptitude. This indicates emotional control is greater in art high school students than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In other words, just because musical aptitude was high in art high school students o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didn't mean their

emotional control levels were high.

Third, school type and musical aptitud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otional application factor that improves the effect of productive activities using emotion in the category of emotional intelligence. ($F=8.191$, $p<.001$). The factors that mostly affected emotional application were school type and melody scores among musical aptitude. This indicates that art high school students have a higher degree of emotional application than their general high school counterparts. In addition, when melody score was high in the category of musical aptitude, emotional application was higher. Meanwhile, rhythm scor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motional application.

Compiling these findings, it can be said that art high school students had a higher level of preference for assignment difficulty in the category of self-efficacy and a higher level of emotional control and emotional application in the category of emotional intelligence tha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that when melody score was higher in the category of musical aptitude, emotional application was higher in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and art high school students.

However, it is assumed that it is accumulated musical education and musical training, or more maturity in determining one's own career that are often found in art high school students that affected these results.

<부록>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개인의 음악적성과 정서지능,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검사는 시험이 아니므로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본 질문지에 대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연구 후에는 결과지를 모두 안전하게 폐기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또한 음악교육의 발전적 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오니 이점 양해 주셔서 한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017년 3월

학년	전공계열	이름	성별
고1, 고2, 고3	문과, 이과, 예체능		

- 한국음악적성검사 -

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	---	---	-----

리듬		
문항번호	같은	다름
예제1	o	o
예제2	o	o
번호	같은	다름
1	o	o
2	o	o
3	o	o
4	o	o
5	o	o
6	o	o
7	o	o
8	o	o
9	o	o
10	o	o
11	o	o
12	o	o
13	o	o
14	o	o
15	o	o
16	o	o
17	o	o
18	o	o
19	o	o
20	o	o
21	o	o
22	o	o
23	o	o
24	o	o
25	o	o
26	o	o
27	o	o
28	o	o
29	o	o
30	o	o

가락		
문항번호	같은	다름
예제1	o	o
예제2	o	o
번호	같은	다름
1	o	o
2	o	o
3	o	o
4	o	o
5	o	o
6	o	o
7	o	o
8	o	o
9	o	o
10	o	o
11	o	o
12	o	o
13	o	o
14	o	o
15	o	o
16	o	o
17	o	o
18	o	o
19	o	o
20	o	o
21	o	o
22	o	o
23	o	o
24	o	o
25	o	o
26	o	o
27	o	o
28	o	o
29	o	o
30	o	o

- 자기효능감 질문지 -

◎ 다음은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문항의 내용이 자신을 잘 나타내며 평소 생각하고 있는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번호에 V표 해주세요.

번호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1	2	3	4	5	6
2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6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	2	3	4	5	6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6
5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1	2	3	4	5	6
6	일은 쉬운 것일수록 좋다.	1	2	3	4	5	6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	2	3	4	5	6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 할 수 있다.	1	2	3	4	5	6
9	만일 일을 선택 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 할 것이다.	1	2	3	4	5	6
10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1	2	3	4	5	6
11	어떤 일을 시작 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한다.	1	2	3	4	5	6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1	2	3	4	5	6
13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 같다.	1	2	3	4	5	6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1	2	3	4	5	6

번호	문 항	매우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6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6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	1	2	3	4	5	6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	2	3	4	5	6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	2	3	4	5	6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	1	2	3	4	5	6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6
22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6
23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다.	1	2	3	4	5	6
24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본다.	1	2	3	4	5	6

- 정서지능 척도 질문지 -

◎ 본 척도는 성인의 정서지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문항을 잘 읽어보시고, 평소에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8,15, 22, 29, 35, 39, 44, 45번 문항은 ①, ②번 중에 하나를 택하여 V표 해주시면 됩니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1	2	3	4	5
2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을 파악 할 수 있다.	1	2	3	4	5
3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1	2	3	4	5
4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 어떤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1	2	3	4	5
5	우울해지면 유쾌한 기억을 떠올려서 기분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6	기분이 나쁜 일은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1	2	3	4	5
7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웃는 얼굴을 지니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8	내가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보자. 밤새 작업한 보고서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나는 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기억을 되살려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다. ②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고 억울해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9	내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1	2	3	4	5
10	TV나 책에 몰입하여 감정에 폭 빠지는 편이다.	1	2	3	4	5
11	평소에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	1	2	3	4	5
12	장애인이거나 환자를 보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연민을 느끼고 가슴이 아프다.	1	2	3	4	5
13	평소에 좋은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4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1	2	3	4	5
15	정신을 집중해서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웃고 떠들어서 정신이 혼미하다. 이럴 때 나는 ① 지금은 일단 쉬고 조용히 밤에 일을 할 생각으로 마음을 느긋하게 먹는다. ②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화난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내가 느끼는 감정을 쉽게 감지 할 수 있다.	1	2	3	4	5
17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통명스럽게 말하거나 행동한다.	1	2	3	4	5
18	나와 친한 친구나 이웃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왠지 나도 뿌듯해 진다.	1	2	3	4	5
19	괴로운 일을 겪더라도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1	2	3	4	5
20	다른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평소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쓴다.	1	2	3	4	5
21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동과 태도에 신경을 쓴다.	1	2	3	4	5
22	평소에 나에게 유난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에게 나는 ①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다. ②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므로 똑같이 행동한다.					
23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의 내 기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1	2	3	4	5
24	나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갖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	2	3	4	5
25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많이 배려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	1	2	3	4	5
26	나와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불쾌한 일을 당하면 내 기분도 언짢아진다.	1	2	3	4	5
27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8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의 기분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되새겨 본다.	1	2	3	4	5
29	친한 친구에게 선물 받은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럴 때 나는 ① 속상하지만 빨리 잊어버리고 정돈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고 생각한다. ② 잃어버린 지갑과 선물해 준 사람이 생각나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					
30	목소리, 말투 혹은 목소리의 톤만 들어도 상대방의 기분을 알 수 있다.	1	2	3	4	5
31	마음과 달리 누군가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1	2	3	4	5
32	나와 친한 친구가 누구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거나 무시당하면 내가 마치 그 일을 당한 것처럼 화가 난다.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4	나는 누군가가 우울해 보이면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농담을 잘 한다.	1	2	3	4	5
35	평소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사람과 일을 같이 해 볼 기회가 생겼다. 이럴 때 나는 ① 이 기회를 통해서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거나 최소한 장점이라도 찾아보겠다. ② 되도록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거나 무시한다.					
36	나에게 누군가 도움을 주었을 때 마음과 달리 고마움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	1	2	3	4	5
37	마치 사람을 대하듯 애완동물을 대하는 사람을 보면 우습다.	1	2	3	4	5
38	우울한 기분이 들 때 즐거워 질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사용한다.	1	2	3	4	5
39	누군가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럴 때 나는 ① 한 쪽 귀로 흘려듣고 나쁜 기분을 바꿔보려고 한다. ② 험담을 한 사람을 찾아가 따져야 직성이 풀린다.					
40	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2	3	4	5
41	육교나 지하철에서 거지를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측은함을 느낀다.	1	2	3	4	5
42	나의 가족 중 누군가 기분이 상해 있을 때는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43	나의 친구나 가족이 우울해하거나 기분이 안좋을 때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4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럴 때 나는 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느끼게 될 성취감과 성과를 생각하며 재도전을 해본다. ② 이 문제는 내 능력 밖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45	내일 불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른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이럴 때 나는 ① 꼭 붙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그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놀림 받을 생각을 하며 몸과 마음을 각성시킨다. ② 지금 공부해도 잘 안 될 것이므로 그냥 쉬거나 잠을 잔다.					